



재활용산업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포장방법 및 포장검사업무시작

이형식 /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기술개발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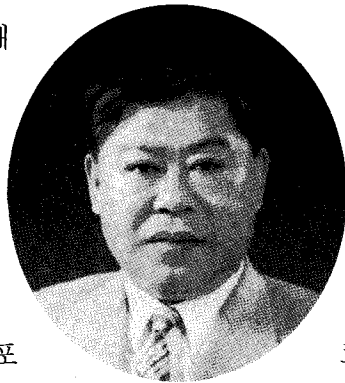
한 | 국자원재생공사(사장 심재곤)는 지난 9월21부터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검사기관으로서의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지난 4월부터 재활용기술개발센터 내에 시험분석실을 신설하여 포장검사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이형식 센터장은 “지난 8월25일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검사기관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일부 업무보완을 거쳐 9월21일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마침 추석을 앞둔 시기여서 「중추절 과대포장 억제」를 위한 캠페인을 전국11개소에서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식 센터장은 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 임용되어 1979년 환경청(현 환경부)을 거쳐 자원재생공사의 설립멤버로 입사하여 폐기물관련 업무에 20년 넘게 종사하고 있다.

이형식 센터장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1980년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거 설



립되어 폐비닐 수거·처리사업을 내무부로부터 인수하여 주로 영농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다

1991년 재활용품수거·처리사업, 1995년 쓰레기종량제에 참여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공사 초창기에는 특히 플라스틱류 등의 재활용품관련 용어 자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수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현재 본사 7층3실1센터와 8지사, 1출장소 5공장, 60사업소를 두고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과 재활용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의개발·보급은 물론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매입과 유·무상공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으로 재활용제도가 국가주도에서 점차 민간주도로 전환됨에 따라 재활용산업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기술개발사업지원과 기술지도사업, 폐기물재활용관련 학술활동 등 재

포장업무 위해 포장제에 관한 지식·정보습득

활용기술의 발전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재활용기술개발센터의 역할도 크게 기대된다.

이형식 센터장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쓰레기의 처리문제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포장을 아주 안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된 포장재나 용기를 적절하게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피력했다.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내실 있게 추진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까지 고려해 대비책까지 마련한다.”라는 그만의 업무방침으로 재활용기술개발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이형식 센터장은 어떠한 일에도 철두철미하다.

재활용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검사 업무를 보다 철저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장제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형식 센터장은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기관이나 기업이 아닌 우리 모두가 상호보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제품포장의 설계단계에

서 검사기관과 사전 협조를 통하여 적정포장과 환경친화적인 포장계획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해 더욱 세밀한 기준설정과 그 기준을 강화해 나아가야 하며 포장의 기능이 제품의 가치보호와 보관, 물류비용절감에 있는 만큼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식품류와 같은 것은 국민건강과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 관계 제조자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기술개발센터는 2002년 상반기 김포매립지 내 환경연구단지 사옥으로 이전시 충분한 검사공간과 실험실을 갖출 예정이며 검사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국 9개 지사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제기됨에도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기술개발센터가 한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기를 그리고 이형식 센터장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권해진 기자